안식처 없는 비극적 세상… 디스토피아의 세계

시네필과 함께하는 영화산책 〈2〉 콘크리트 유토피아·황야

종말 이후의 삶을 그린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들이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해 개봉해 대종상 6관왕을 거머쥔 '콘크리트 유토피아'(콘유·감독 엄태화)가 그 대표주자다. 지난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허명행 감독의 '황야'도 이목을 끈다. 두 작품은 세계관을 공유해 촬영 세트장 일부가 동일하다. 두 디스토피아 세계가 그리는 '콘크리트 유니버스'로 들어가 보자.

외부인들을 가로막는 황궁아파트 입주자들. 결국 대치하던 외부인들은 대부분 밖으로 내몰려 동사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스틸컷〉

'황야'에서 남산(마동석 분)은 오직 힘만이 군림하는 무법지대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황야 스틸컷〉

■콘크리트 유토피아

지진서 살아남은 '황궁아파트'
굶주린 방랑자·혹한의 추위 속
이기심이 만든 그들만의 유토피아

◇그들만을 위한 지상 천국…… '콘크리트 유토피아'

바야흐로 '아파트 전성시대'다. 꼭 아파트만이 아니라도, 내 집 장만이 꿈이 된 오늘날 '아파트'란 '갖지 못할 안식처'를 표상하는 것 같다.

뒤틀린 사회의 단면과 그릇된 욕망이 결집해 탄생시킨 영화가 바로 '콘크리트 유토피아'다. 현재 티빙, 넷플릭스 등 OTT에서 상영 중. 작품은 김숭늉 작가의 웹툰 '유쾌한 왕따'를 각색해 종말 속 인간들의 이기심과 한국의 '아파트 공화국' 실태 등을 그렸다.

제목과 달리 영화에는 유토피아가 없다. 아파트 밖에는 굶주린 방랑자들이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돌고, 엄동 혹한의 추위가 몰아친다. 다가온 지진은 신의 형벌 그 자체다. 아파트 '네임벨류'에 따라 서로를 구분하고 입지에 따라 계층이 갈리는 문제들에 대한 '신의 문책'으로 보였다.

재난이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집단주의에 빠져 '아파트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 아수라장 속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의 그림자는 생경했다.

영화 속 아파트가 복도식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내부가 훤히 보이는 복도식인 탓에 주민 간 왕래를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고 상호 감시도 가능했다.

미셸 푸코는 일찍이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교도소 형태 '파놉티콘'에서 착안, 인간을 감시하는 원형 감옥을 상상했다. 겉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구조물은 정보 차이와 위계를 형성하고 감시자인 교도관에게 권력을 부여한다는 것.

파놉티콘이 작품 속 '황궁 아파트'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몰락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유토피아였던 황궁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죄수들과 비교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파트 동·호수는 죄인들의 수인번호(囚人番號)처럼 느껴졌다.

◇멸망한 세상, 사냥꾼이 필요하다… '황야'

한편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멀티 유니버스를 그린 영화 '황야'는 멸망한 황무지에서 살아가는 악어 사냥꾼 남산(마동석 분)을 중심으로 비극적 세계를 보여준다. 콘유에 나왔던 황궁아파트 103동의 모습도 얼핏 볼 수 있다.

영화는 콘유의 스핀오프(속편)라기보다는 오히려 독립적인 에피소드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전작을 보지 않고도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

주인공들은 야만스럽게 생존하는 황야의 무법자가 되기만을 고집하지 않고 유일한 의사 생존자 양기수(이희준 분), 지완(이준영) 등과 협업해 어려움을 극복해 간다.

작품은 마동석류 액션이 주는 카타르시스도 놓치지 않았다. 그동안 영화 '범죄도시', '이터널스' 등에서 보여줬던 주먹질 대신 엽총을 선택해 호방한 볼트 액션을 선보인다.

생체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좀비들도 흥미롭다. 콘유에서는 좀비와 다름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묘사했지만, 황야는 좀비 역을 등장시켜 K-좀비물의 계보를 이어간다.

드넓게 펼쳐진 황무지는 명작 '매드맥스'풍의 척박함을 연상시켰다. 물론 영화적 상상력이 가미됐지만 디스토피아 속에서 어디에선가 벌어질 법한 상황이라는 점은 섬뜩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상영 중.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황야

생체 실험으로 만들어진 좀비
좀비와 다름없는 인간의 모습
마동석 액션 카타르시스 짜릿

사진인가? 회화인가?

박현진 개인전, 3월 24일까지 광주롯데백화점 갤러리

로망스 하면 대개 남녀의 사랑이나 꿈같은 이야기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로망스가 있을 것이다.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위안이 되는,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로망스 하나 정도 말이다.

박현진 작가의 개인전에서 맞닥뜨리는 '로망스'는 익히 아는 로망스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 가볍지 않다. 깊다. 의미가 복합적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11층 롯데갤러리에서 오는 3월 24일까지 열리는 'ROMANCE 로망스'. 국내외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 작가의 첫 광주 전시다.

작품도 작품이지만 창작 과정도 하나의 '작품'이다. 작가는 디지털카메라로 이미지나 순간을 포착한다. 이후 모든 색을 뺀다. 작가는 자신의 기억들(로망스)을 모티브 삼아 컬러를 입힌다.

일련의 과정은 판화작업을 떠올리게 한다. 표면에 여러 겹들이 층위를 이루며 만들어내는 컬러의 입자는 신비롭고 아름답다. 추상적 효과가 극대화된다. 색체 실험의 단면을 보여주는 평면회화랄까. 마치 미국 추상주의의 대가 마크 로스코의 '색면 추상'이 환기된다. 작가 또한 마크 로스코의 작업을 떠올렸음직하다.

풍경사진이 분명한데 보이는 것은 추상화다. 과연 작품은 사진인가 회화인가. 아니 어디까지가 사진이며 어느 영역부터 회화라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물음은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

이은하 콜렉티브오피스 대표는 "어떤 작품은 식민지나 제국주의 등 역사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그것에 컬러를 입힘으로써 추상성을 발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관람객이 각자 로망, 이상에 따라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ROMANCE'의 또 다른 사전적 의미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다'이다"며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사진들에 명사와 형용사, 동사 대신 감각의 색을 입혀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고 언급한다.

한편 박 작가는 성균관대 공과대학 재학시절 1989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베르사이유 예술대학을 졸업했다. 파리 소나무 아뜰리에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red#1'

아티스트 이정식(Bubble J)이 풍선과 마술을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습. 〈광산문예회관 제공〉

'버블J'와 함께 환상의 세계로

'언빌리벌룬쇼' 24일 광산문예회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과 환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가족매직쇼 '언빌리벌룬쇼'가 오는 24일(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4시) 광산문예회관에서 열린다. 공연은 전국투어 일환으로 펼쳐지며 오케스트라 연주곡과 마술, 벌룬아트, 비눗방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한 구성과 화려한 조명, 춤, 객석으로 날아드는 비눗방울 등이 특징이다.

마술 보조원 역할에 자원하는 아이들은 직접 무대에 오를 수 있다. 머리에 초대형 풍선 끼우기, 여러 개의 비눗방울을 이어 붙이거나 대형 비눗방울 안에 직접 들어가보는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형형색색 연기로 채운 풍선을 객석으로 날리는 코너도 이색적이다.

어린이 공연의 한류 스타로도 불리는 버블J(본명 이정식)는 2016년 중국 투어를 시작으로 해외 10개국 40여 도시에서 공연을 선보여 왔다. 현재 중국 공연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쿠아쇼', '겨울왕국' 등 국내 어린이공연의 기초가 되는 작품들을 기획했다.

R석 3만5000원. 인터파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10월까지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은 10월까지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폭력 의무 교육대상이 아닌 곳을 전문 강사가 방문해 사례별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직장과 동료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 찾기', '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 되기' 등을 비롯해 우리마을 안전 지키기, 이주민 안전 문제와 다문화 교육 등 교육 대상별 사례를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인원은 10명 이상이면 교육일 14일 전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나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직업계고, 이주민, 장애인, 꿈드림센터 등은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올해 폭력예방교육은 '어디든 누구든 찾아갑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상별 사례를 활용한 맞춤 내용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